

23일 개관 3주년 맞는 고흥 남포 미술관



바닷가 갤러리가 지역문화 사랑방으로

학생들이 모두 떠난 바닷가 마을 폐교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시골 마을에서 좀처럼 구경하기 힘들었던 전시회가 열리고 밤이면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문화 공연이 펼쳐진다.

오는 23일로 개관 3주년을 맞는 고흥군 영남면 양사리 남포미술관이 지역 문화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팔영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오지인 이곳엔 인근에 변변한 관광명소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연중 관람객과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개관 첫째 6천명, 2006년 7천700명, 2007년 1만2천여명이 미술관을 찾았다.

대도시 미술관에서도 매년 치러내기 힘든 다양한 초대전과 기획전,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룬 성과다. 해마다 7~8차례 기획 전시를 열고, 300여점의 소장품도 상시 전시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내 집 드나들 듯 미술관을 찾고 있다.

또 미술관이 야트막한 산자락을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어 그림에 반하고, 풍경에 취해 갈수록 관람객들이 늘고 있다. 최근에는 미술관이 없는 여수·광양 등지에서 체험 학습을 오는 학생들도 늘어 방학과 주말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나들이객이 많이 찾는다.

지난해 7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폐교 리모델링해 年 7~8회 기획 전시 열어
방학·주말 미술 체험 가족나들이객 북적

개최한 대형 민화전 '옛 사람들, 그 삶의 흔적을 보다'전은 20여일만에 4천여명의 관람객을 모았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관람객들이

작가를 직접 만나 그림 설명을 듣는 '작가가 들려주는 특별한 이야기'전 도 마련했다.

이 전시회는 미술을 접할 기회가

적었던 지역 관람객 4천여명이 미술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방과 후 별다른 놀이가 없던 아이들을 위해 조형놀이, 아름다운 관화,



23일로 개관 3주년을 맞는 고흥 남포미술관이 색다른 기획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들의 문화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고흥=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의 도슨트 체험, 여름방학 미술특강, 참숯놀이, 회화 교실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해 그동안 1천100여명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았다.

또 국립민속국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4중주단, 한우리 오케라단, 뿌리 예술단, 모던팝스오케스트라 등을 초대해 지역민들에게 축제의 장을 열었다.

남포미술관은 지난 2005년 2월23일 폐교가 된 영남중학교(설립자 과 귀동) 부지(8천264㎡)에 학교 설립자의 아들인 과 관장이 사재 등 2억8천여만원을 들여 1천223㎡의 규모로 전시장, 공연장, 풍물 연습실, 자료실, 구내식당을 갖추고 문을 열었다.

오는 29일까지 개관을 기념해 오승훈, 우재길, 오경규씨의 작품 등을 모아 '남포미술관 소장 작품전'을 연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고흥=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뮤지컬 'I do I do' 에 향서 분다

23~24일 광주 문예회관 대극장

시트콤 '거침 없이 하이킥'을 통해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뮤지컬 스타 박해미가 주연을 맡은 뮤지컬 'I do I do'가 광주에서 공연된다. 23일 오후 8시, 7시30분, 24일 오후 8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1966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 후 지금까지 많은 관객을 끌어 모으고 있는 'I do I do'는 결혼부터 노년기까지 부부의 인생 이야기를 춤과 노래로 풀어낸 로맨틱 코미디물.

박해미가 직접 제작, 화제가 되기도 했던 작품으로 방금 결혼식을 마치고 설레는 첫날밤을 맞은 아그네스와 마이클이 20대 신혼기부터 70대까지 결혼생활을 지속하면서 겪게 되는 갖가지 에피소드를 유쾌하고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영원히 함께',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등 아름다운 뮤지컬 넘버는 물론, 자비·엘츠 등 다양한 춤과 미술 등이 함께 어우러져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티켓 가격 5만5천원, 4만4천원. 문의 1588-07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조상들 삶의 흔적 엿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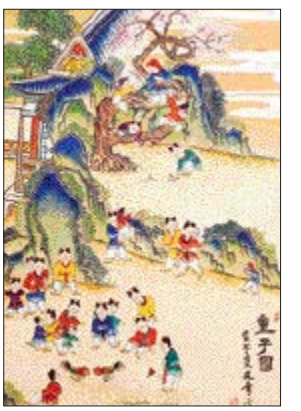
김생수 민화 초대전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광주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은 오는 3월9일까지 조상들의 삶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김생수 민화 초대'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에는 색채가 화려한 '화조화'와 맑고 명랑한 정서가 짙하게 표현된 '동자도' 등 풍자와 유머가 담긴 30여점의 민화 작품이 선보인다.

또 오는 22일, 29일에는 관람객들이 직접 민화를 그려보는 무료 체험 행사도 열린다.

호남대 한국학과를 졸업한 김생수씨는 남도미진 한국화 부문에 입선했으며, 한국민화작가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문의 061-832-0003.



김생수 작 '동자도'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꿈꾸는 삼 & 플랫' 음악 축제 소외계층과 함께해요

23일 표문화수도 홍보관에서 열려

'꿈꾸는 삼 & 플랫' 음악 축제가 23일 오후 1시~6시까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에서 열린다.

'꿈꾸는 삼 & 플랫'은 '삼성고등학교 장학재단'의 후원을 받은 '수상한 교육문화공동체 결'(이하 결)이 지역 음악인들과 함께 문화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해 진행한 소리 문화 교육 프로젝트다.

'노래하는 아이들'과 '타악 프로젝트'를 통해 10개월 동안 함께 선생님과 함께 부대끼며 연습을 해온 아이들은 이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낼 예정이다.

체험마당도 운영된다. 음악 워크숍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타악기를 직접 연주하며 음악 공동체를 만들어 보는 '타악 워크숍-드림 서클'과 내 몸을 두드리며 리듬을 만들고 함께 놀아보는 '몸벌레 워크숍-동네북'이 마련된다.

또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악기 공방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붓고와 첼로 등 악기를 만들고 연주해 보며 악기의 원리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밖에 재활용 악기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나눔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며 그동안 아이들의 활동 모습을 담은 글과 사진 등도 전시된다. 문의 062-432-131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재단

마케팅 참여 업체 모집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제7회 광주 비엔날레'의 공동마케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입장권 판매를 위한 신용카드사, 놀이기구·위락시설, 숙박시설, KTX 등 교통 관련 업체 등 비엔날레 관람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업종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음달 3~10일 까지 제안서를 접수 받고, 17일 선정 업체를 발표하게 된다. 지난해 열렸던 제2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는 비씨카드 등 신용카드사 4개사와 금호패밀리랜드 등 위락시설, KTX 등이 공동 마케팅에 참여했다. 문의 062-608-4223. /오광복기자 kroh@

윤여진씨 독주회

오늘 광양 백운아트홀

바이올리니스트 윤여진씨가 22일 오후 7시30분 광양 제철소 백운아트홀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윤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슈만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1번', 스트라빈스키의 '듀오 콘체르탄테' 등을 공연한다. 피아노 반주는 문현미씨.

서울에 출신으로 독일 데트몰드 국립 음대 전문연주자 과정과 독일 로스토크 국립 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윤씨는 현재 제주 챔버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Movie advertisement banner for 'Happy Time 영화안내' featuring various cinema listings like Megabox, Enter Cinema, Columbus Cinema, Sinner's Front, and Jeil Cinema with their respective showtimes and programs.